건강 칼럼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경부암'

최영득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전북지부 원장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은 2차 성징 이후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질환이다.

그러나 꽤 오랜 전암 단계에서 여러 예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위험한 상황까지 도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예방접종과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주 원인

자궁경부암은 암이 되기 이전인 전암 단계를 상당 기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 상피세포에서 시작해 상피내세포에 이상이 발생하는 자궁경부상피이형성증을 거쳐 상피 내에만 암세포가 존재하는 자궁경부상피내암(자궁경부암 0기)으로 진행되고, 이 단계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면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한다.

자궁경부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 감염이다. 이는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중 대부분은 저위험군으로 일시적인 감염을 일으켜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감염이 지속돼 자궁경부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바이러스의 단백질들이 종양억제유전자의 단백질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암이 유발된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에 감염됐다고 모두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더불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학연구에 의하면 17세 이전의 성관계를 가진 여성,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 여러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배우자를 둔 여성일수록 암 발생률이 높다.

▲ 부정출혈, 악취 나는 분비물 발생하면 의심해야

자궁경부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질 출혈이다. 암세포들이 종괴를 형성하면 이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분포가 많아지고 이곳에서 출혈이 발생한다. 폐경 이후에 출혈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폐경 이전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출혈을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출혈은 성관계나 심한 운동 후 대변을 볼 때, 질 세척 후에 많이 나타날 수 있다. 폐경 이전의 여성에서는 생리양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생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심한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의 증가도 자궁경부암의 증상 중 하나다. 암세포가 2차적으로 감염이 되거나 괴사되면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생겨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 또한 자궁경부암이 상당히 진행돼 주위 장기에 침윤하면 요관이 막혀 신장이 붓고 이로 인해 허리가 아프거나 골반 좌골신경이 침범돼 하지통증이 있을 수 있다.

▲ 정기적인 검진으로 예방 가능

자궁경부암의 진단방법으로는 내진과 자궁경부질세포검사가 있다. 내진은 영상학적인 검사 시행 전에 자궁경부암이 질·골반·방광·직장 등으로 침범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자궁경부질세포검사는 세포를 통해 자궁경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궁경부질세포검사나 육안 관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자궁경부의 비정상 부위를 질확대경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부위의 조직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다. 조직검사는 자궁경부에서 작은 조직을 떼어내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조직을 관찰한다.

이상의 검사를 시행해도 암세포가 자궁경부의 표피에만 있는지 기저막을 뚫고 더 깊이 침범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원추절제술을 할 수도 있다. 원추절제술은 자궁경부암의 침윤 정도를 확인하는 진단뿐 아니라 치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

전암성 병변인 경우에는 원추절제술만으로도 완치해 치료 후 출산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침윤성 자궁경부암인 경우에는 대부분 광범위 자궁적출술이나 항암화학 방사선치료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이상의 치료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또한 임신을 원하는 경우 광범위 자궁경부적출술과 복강경을 이용한 임파절절제술을 시행하면 출산이 가능하기도 하다.

최영득 원장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 자궁경부암은 예방백신이 있는 유일한 암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만 12세의 경우 국가에서 실시하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접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독자제언

인형뽑기, 게임이 아닌 도박이 될 수도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이 계속되면서 요행을 바라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 일명 '인형 뽑기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인형 뽑기방 수는 올해 1월 말 현재 1천 곳을 돌파, 1년 전에 비해 55배나 늘었고 불과 2개월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됐다.

도박(賭博)이란 불확실한 결과에 돈을 걸고 하는 내기를 말한다. 잃으면 본전을 찾기 위해, 따면 그 맛에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도박의 무서움이다. '인형뽑기' 역시 마찬가지로 경위 경과가 불확실한 사건이나 활동에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걸어 요행을 바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넓은 범주에서는 도박에 포함된다.

이러한 '인형뽑기'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분류돼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

이뿐 아니라 성인들도 '뽑기방' 열풍에 동참해 더 이상 뽑기방이 어린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불법으로 개·변조된 기계나 상한금액 이상의 경품을 통해 사행성을 불어 넣을 경우 뽑기기계 또한 도박처럼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동해 불법 크레인 게임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국민들이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어려운 현실에서 무기력한 국민들이 성취감을 얻기 위해 뽑기에 열광하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보인다. 그러나 게임도 스스로 절제력을 잃어간다면 도박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자

최근 여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스스로가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범죄를 예방하는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의 경우 늦은 시간에 홀로 귀가할때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경찰관들이 집 근처에 한해 귀가를 도와주는 서비스인 여성심야귀가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골목길등보다는 큰 길을 이용하고 너무 늦은 시간 외출을 삼가야 한다.

차량을 주차시에는 관리인이 있는곳이나 CCTV가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며 하차시에는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안전을 생각해야한다.

온갖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는 우리 사회에 과거에 발생한 사회적 약자 상대 범죄와 유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며 이런 범죄예방을 위해 다같이 동참하는 자세와 참여가 있을때 가장 좋은 예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덕환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 저번에 대통령이 한 말을 상기해야 한다.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겠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그 말은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그 무엇보다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겠다.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식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흙수저'니 '헬조선'이니 하는 말이 지금도 되뇌어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병리 현상이 여전히 뿌리 깊은 까닭이다. 태생이 '금수저'들은 부도 세습되고 일자리도 세습되는 판인데 서민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질 모양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가장 낙후된 우리 지역의 현실에 눈을 주어야겠다. 도내 젊은이들 중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며 고민하는 이가 아직도 적지 않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매년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건만 정작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 난감하다.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과 관련해 전북도는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리 준비된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다.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말해야 전북 청년들의 몫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반복해 말하는데 정기적으로 젊은이들의 취업에 신경을 쓰고 도와주었으면 한다. 아무리 정부의 의도가 좋아도 이쪽에서 붙잡는 게 약하면 나중에 다른 광역시도의 그것과 비교해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전북도는 생각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모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커플링 사업 말이다. 커플링사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는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것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보여줄 일자리 창출 전개방식을 구상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그래야 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새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그 실적을 도민에게 확인시켜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전북도 기업유치 실적 구체적이어야

도지사가 민선 6기 3년을 돌아보는 기자회견의 자리에서 많은 말을 남겼다. 그 많은 말들은 전북도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알렸다. 농생명 밸리와 혁신도시의 발전과 삼락농정등 귀에 익숙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저번에 바다의 날 경축식에서 강조했던 잼버리 대회 유치와 관련한 언급도 그렇다. 도지사는 이번에도 전북몫 챙기기를 강조했는데 2020년을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해로 내다본 것도 예전부터 들은 것이라 귀에 익숙하다.

그런데 도지사의 그 많은 언급들 중에서 주목이 되는 것이 있다. 새만금 투자 협약 체결과 관련한 '삼성불씨론'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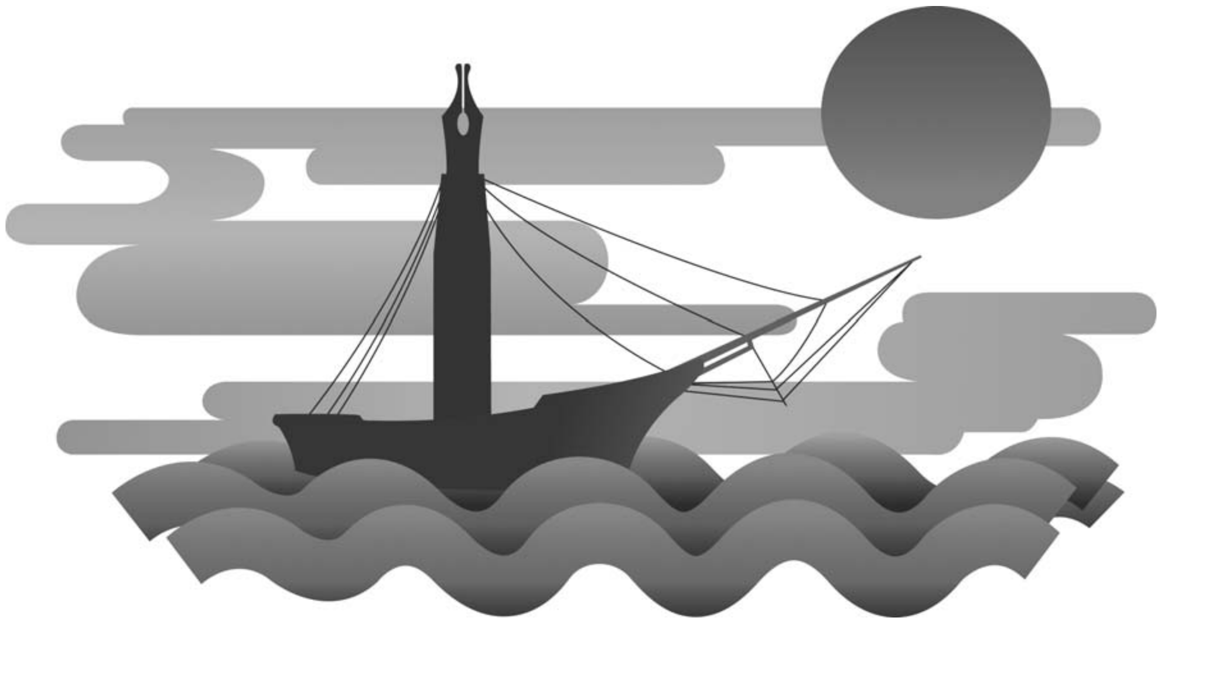
삼성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전북 투자가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말도 덧붙였는데 그게 좀 듣기에 묘했다. 삼성 투자약속의 진실과 팩트가 뭔지 다시 궁금해진 것이다.

얼마 전에 전임 김완주 도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이 전북도의 언론플레이 쑈가 아니고 삼성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 도지사의 삼성불씨론 언급이 거기에 미련을 둔 것이라면 재고해볼 문제이다.

삼성이 새만금에 조 단위의 투자를 한다면 반갑고 고마운 일이나 현재로선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이다. 그래서 전북도의 삼성불씨론이 도민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안타까운 짝사랑처럼 비쳐지고 있다.

때문에 전북도에게 줄 말은 분명하다. 기업유치 작업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더러 기업유치 실적 보고가 정직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지난해 삼성의 새만금 유치의 진실을 밝히려는 국감에서 점입가경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삼성 간 합의후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그때 임채민 전 총리실장은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전북도는 당당해야 한다. 투자를 하겠노라고 양해 각서에 서명만 해놓고 그 시기를 한정없이 미루다가 파기시켜버린 기업이 삼성 외에도 그 얼마나 많았는가. 이제 양해각서 서명 수준의 기업 유치로는 도민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